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

박 지 선†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총 200명의 연구 참여자(20-30대 남녀 각 100명)를 대상으로 살펴보고, 둘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우선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일차적 분노 사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성차를 보였으나, 다른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언어폭력에 미치는 자기공격/비판,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의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더불어,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자기비판/공격을 많이 할수록 일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보였고, 일차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보일수록 부정 정서 반응성을 더 강하게 나타냈으며,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할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보였다. 또한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 정서 반응성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는데, 자기비판/공격을 많이 할수록 부정 정서 반응성이 더 강했고,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할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언어폭력에 관해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 및 대처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언어폭력, 자기비판, 자기공격,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 교신저자 :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E-mail: jipark@sookmyung.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언어폭력은 대인 간 상호작용 중 상대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려 하는 상황에서 언어적 전달을 통하여 나타난다(Hamilton, 2012). 언어폭력에는 모욕이나 위협, 비방, 조롱 등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포함된다(한주리, 허경호, 2003). 특히 디지털 시대의 언어폭력은 전화나 문자,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이지연, 김도예, 정유진, 이승연, 2023). 이에, 대면 상호작용에서뿐만 아니라 SNS 등의 온라인에서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언어폭력에 관한 연구가 사이버 공간이나 청소년 심리 등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권혜림, 2024; 박지선, 이한울, 2025).

언어폭력은 대인 간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시도할 때나 상대와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상대를 통제하고 상대방에게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할 때 주로 나타난다(Hamilton, 2012). 이러한 언어폭력을 자주 보이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과는 다른 의견을 표현할 때 이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상대방과는 다른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의 성격이나 능력 등을 공격하여 갈등을 초래한다(전지현, 성지현, 2006). 또한, 언어폭력을 자주 나타내는 사람들은 타인에 적대적이며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낮아 타인과 소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한주리, 허경호, 2003; Infante & Wigley, 1986).

언어폭력은 파괴적인 성향으로, 공격을 받은 사람에게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당한 사람은 분노나 당황스러움, 비참함 등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언어폭력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과 우울, 자살 사고

등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한현우 등, 2025). 더불어, 언어폭력은 상해 등의 신체적 공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Hammett, Karney & Bradbury, 2021). 때로 언어폭력의 피해는 신체적 공격보다도 더 깊이, 더 오래 그 영향이 지속되기도 한다(한현우 등, 2025).

따라서, 언어폭력을 보이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탐구하고, 언어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이나 치료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한현우 등, 2025). 그동안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 간에 언어폭력의 모방 등 가정적 요인, 적대감이나 충동성 등의 성격적 요인, 미디어를 통한 학습 등의 문화적 요인 등에 대한 다양한 탐구가 이루어져 왔다(강진설, 박지선, 2024; Hamilton, 2012). 이 연구는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성격적, 인지적, 정서적 요인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우선 자기비판/공격 성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이 높으면서 공격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일차적 분노 사고와 함께(서수균, 권석만, 2005),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으며 적대적 태도 및 공격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부정 정서 반응성(이석호, 2009; Syeda, Shah, Jan, & Mumtaz, 2023)이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언어폭력의 방지를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이나 정서 조절 개선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등의 활용 등 언어폭력 예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긍정적이고도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비판/공격(self-criticizing/attacking) 성향은 스스로를 만성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태도가 성격 특질로 굳어진 것으로, 계속 열등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경멸하고 자기 모습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리킨다(김경희, 이희경, 2024).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비판(self-criticizing)은 자기 능력 부족이나 실패와 관련하여 자신을 만성적으로 깎아내리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특성을 일컫고, 자기공격(self-attacking)은 자신을 역겨워하고 싫어하며 스스로에게 욕을 하는 등 파괴적인 특성을 일컫는다(Gilbert, Clarke, Hempel, Miles, & Irons, 2004). 자기비판과 자기공격 모두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개념상 인지적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많으나, 서로 독립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특히 자기비판은 정서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기공격은 행동과 더 밀접하다고 보기도 한다(김재희, 서경현, 2021; Gilbert et al., 2004). 한편, 국내에서는 자기비판과 자기공격 요인을 단일 요인으로 묶었을 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이나 반추, 부정 정서와의 관계 등에서 두 요인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요인을 기능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조현주, 이승훈, 신철, 조용원, 2011).

자기비판/공격 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활성화되는 등 우울과 같은 다양한 정신병리에 취약하고, 수치심과 좌절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며, 자존감이 낮고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으며, 자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김유미, 송미경, 2017; 조현주 등, 2011; 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6). 이에, 자기비판/공격 특성은 다양한 정신병리의 원인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Werner, Tibubous, Rohrmann, & Reiss, 2019).

또한 자기비판/공격 특성은 분노나 대인 간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높고, 때로는 폭력과 같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Nagy, Polk, & Muckerheide, 2023). 실제로, 2023년 부산에서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대생을 살해한 정유정의 경우,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공무원 시험에도 떨어진 후 스스로 수치심과 부적절감을 느끼고 가족과 사회에 불만을 품어오다가, 자살하고 싶으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여 사람을 죽여 분노를 풀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합310 판결). 이처럼 살인과 같은 극단적 폭력 행위 외에도,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특성은 데이트폭력 가해나 학교에서의 괴롭힘 행위 등 타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김수민, 이창배, 2021; 박은선, 박지선, 2024; O'Moore & Kirkham, 2001).

그러나 자기비판/공격 특성은 이제까지 자살이나 자해 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주로 연구되어 왔고(김재희, 서경현, 2021; O'Neill, Pratt, Kilshaw, Ward, Kelly, & Haddock, 2021), 타인을 향한 폭력, 그중에서도 특히 언어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자기비판/공격 특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사회공포증으로 이어져 대인 관계를 기피하기도 하며(Cox, Fleet, & Stein, 2004), 부정적인 자기개념의 영향으로 스스로를 처벌하고 확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자해로 이어지는 경향성에 대한 탐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O'Neill et al., 2021).

그러나, 자기비판/공격 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모멸감을 자주 경험하며 타인에게 적대적이어서, 자신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때로 분노를 표출하는 등 타인을 향한 폭력을 저지른다(조현주 등, 2011; Whelton & Greenberg, 2005). 특히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온라인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포함한 괴롭힘 가해 행위를 많이 하고(Parchin & Hinduja, 2010),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에 대해 비판적인 청소년일수록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이 더 많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정여진, 2015). 이에, 이 연구는 자기비판/공격 특성과 언어폭력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둘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정서적 요인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차적 분노 사고에 대한 자기비판/공격의 영향

분노를 경험하는 데 있어 사건에 관한 생각과 해석의 과정은 인지적인 요인으로서 반드시 수반되는 중요한 절차이다(Hazebroek, Howells, & Day, 2001; Martin, Watson, & Wan, 2000). 이때 분노 상황 당시 자동적으로 경험하는 평가의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일차적 분노 사고(Primary Anger Thought)는 분노 유발 사건 당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와 같이 자존감에 위협이 되는 상황인지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 부여 등의 평가를 지칭한다. 일차적 분노 사고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이고, 다음은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이다. 둘째, 이차적 분노 사고(Secondary Anger Thought)는 '상대방은 혼이 나야 해'와 같이 사건에 대한 대처 행동 및 대처 양상에 대한 평가를 지칭한다. 이차적 분노 사고는 세 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거나 앞으로 잘 해주지 말자는 등의 대처 양상을 반영하는 '타인비난/보복'이고, 둘째는 모든 게 귀찮다거나 살기 싫다는 등의 반응과 연관된 '무력감', 셋째는 참고 기분 좋게 어울리자는 등의 대처 행동을 반영하는 '분노통제/건설적 대처'이다(서수균, 권석만, 2005). 이러한 두 가지의 평가 과정에 있어 인지적인 오류나 왜곡은 이차적 분노 사고에 비해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일차적 분노 사고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미령, 2015; 서수균, 2009). 이에, 이 연구는 앞서 살펴본 자기비판/공격 성향과 관련하여, 해당 분노 유발 사건이 자신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평가와 연관이 있으며 인지적 오류 및 왜곡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일차적 분노 사고 경향성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일차적 분노 사고는 자기비하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임지영, 2015), 자존감이 낮을수록 일차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보였고(김미령, 2015; 서수균, 권석만, 2005). 이에, 이 연구는 자기비판/공격 성향이 강할수록 일차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더불어, 일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할수록 적대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언어적 공격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서수균, 권석만, 2005; 임지영, 2015). 또한 일차적 분노 사고는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서수균,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비판/공격 성향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일차적 분

노 사고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일차적 분노 사고가 분노의 표출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한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서수균, 2009; 추미레, 김정희, 2008), 이 연구는 부정 정서 반응성이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일차적 분노 사고 등 세 변인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부정 정서 반응성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 반응성은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는 특성으로, 얼마나 쉽게 자극에 의해 정서가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민감성’, 얼마나 강렬하게 정서 각성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강도’, 얼마나 오래 각성된 정서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성’에 따른 개인차를 반영한다(Nock, Wedig, Holmberg, & Hooley, 2008). 이처럼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조절과 관련된 성격적 특질인 정서 반응성은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정신병리 및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oyes, Clarke, & Hasking, 2020; Ripper, Boyes, Clarke, & Hasking, 2018). 또한 정서 반응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의성이 높고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등 갈등을 빚고,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며 관계 만족도가 낮았다(이석호, 2009). 더불어, 정서 반응성은 아동의品行 문제와 공격 행동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이자경, 2023).

정서 반응성은 크게 긍정 정서에 대한 반응성과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성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Becerra, Preece, Campitelli, & Scott-Pillow, 2019), 이 연구는 분노나 좌절, 실

망 등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성인 부정 정서 반응성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부정 정서 반응성은 우울이나 경계선 성격 등의 정신병리와 관련이 깊고,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지칭하는 부정 긴급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및 자해 행동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허주연, 황성훈, 2023; Boyes, Carmody, Clarke, & Hasking, 2017; Bylsma, Morris, Rottenberg, 2008).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 반응성이 높을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자존감이 낮을수록 정서 반응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Syeda et al., 2023). 이를 바탕으로, 자기비판/공격 경향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부정 정서 반응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자기비판/공격 경향이 강할수록 부정 정서 반응성이 높고, 부정 정서 반응성이 높을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더불어, 일차적 분노 사고가 분노 표출 등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 대한 반응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 결과를 바탕으로(서수균, 2009; 추미레, 김정희, 2008), 이 연구에서는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간 관계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적인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는 자기비판/공격과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언어폭력 등 주요 변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우선 자기비판/공격 특성에 대해 성차를 아예 조사하지 않거나(조현주 등, 2011) 여성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아 그 결과를 남성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Gilbert et al., 2004). 한편, 일차적 분노 사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는 등 유의한 성차가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일차적 분노 사고와 자아 존중감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여성은 둘 사이 부적 상관이 유의하지 않는 등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김미령, 2015). 또한 부정 정서 반응성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Boyes et al., 2020; Syeda et al., 2023), 언어적 공격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전지현, 성지현, 2006; Infante & Wigley, 1986).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주요 변인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언어폭력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비판/공격,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언어폭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가? 둘째, 자기비판/공격,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성별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가? 셋째,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넷째,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부정 정서 반응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다섯째,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가?

방 법

연구대상

성인들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가해 경험을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 20대와 30대의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40-60대 언어

폭력 가해 경험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이를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20-30대에 속하는 성인 남녀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총 200명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였다.

남성의 평균 나이는 30.42(표준편차 4.59)이고, 여성의 평균 나이는 30.17(표준편차 4.54)이다. G*Power(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통한 사후 분석 결과, Power(1 - β)가 중간 효과 크기 기준($f^2 = .15$)으로 .95보다 크게 나타나, 표본의 적절한 크기가 충족된 것을 확인하였다.

측정도구

자기비판/공격

자기비판/공격 성향은 Gilbert 등(2004)이 개발한 the Form of Self Criticizing/attacking and self Reassuring Scale(FSCRS)을 조현주 등(2011)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자기비판/자기공격과 자기위안 형태 척도(K-FSCR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비판 요인 6문항, 자기공격 요인 4문항, 자기위안 요인 8문항 등 총 1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자기위안 요인 문항들을 제외하고 총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는데, 여기에는 ‘나는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면이 있다’, ‘나는 머릿속으로 자신을 비판하면서 다그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욕을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조현주 등, 2011).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Gilbert 등(2004)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자기비판이 .85, 자기공격이 .85이었고, 조현주

등(2011)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자기비판이 .86, 자기공격이 .72이었으며,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자기비판이 .91, 자기공격이 .85 이었고, 자기비판/공격은 .92이었다.

일차적 분노 사고

일차적 분노 사고는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수균과 권석만(2005)이 개발한 일차적 분노 사고 척도(Primary Anger-Thought Scale)로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 여긴다'와 같은 문항을 통해 측정하는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과 함께, '누가 연락도 없이 나를 기다리게 하면, 내 시간을 빼앗았다는 생각과 함께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의 두 요인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존감에 위협이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일차적 분노 사고와 자기비판/공격 성향 등과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였으므로,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요인에 해당하는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누가 내 말을 무시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말이나 행동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서수균과 권석만(2005)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86이었고,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89이었다.

부정 정서 반응성

부정 정서 반응성은 Becerra와 Campitelli(2013)가 개발한 정서 반응성 척도(Emotional Reactivity Scale)를 바탕으로 허주연과 황성훈(2023)이 타당화한 한국판 Perth 정서 반응성 척도(K-PER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 긍정 반응성을 측정하는 15개 문항과 일반 부정 반응성을 측정하는 15개 문항 등 총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일반 부정 반응성을 측정하는 15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나는 속상할 때, 그것을 떨쳐 내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 '화가 날 때, 나는 그것을 매우 강력하게 느낀다', '내 감정은 중립에서 부정으로 매우 빠르게 변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Becerra와 Campitelli(2013)가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94이었고, 허주연과 황성훈(2023)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95이었으며,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96이었다.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Infante와 Wigley(1986)가 개발한 Verbal Aggressiveness Scale을 국내에서 전지현과 성지현(2006)이 번안한 언어적 공격성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얼마나 언어적인 공격성을 보이는지를 측정한다. 원래 Infante와 Wigley(1986)가 개발한 Verbal Aggressiveness Scale은 총 20개의 문항으로, 10개의 긍정적으로 표현된 문항(예: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할 경우, 상대방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등)과 10개의 부정적으로 표현된 문항('상대방이 형편없는 태도로 행동할 때, 나는

그를 깨워주기 위해 모욕을 준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지현과 성지현(2006)은 이 가운데 부정적으로 표현된 10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고, 이 연구에서도 이를 따랐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때, 나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함을 지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에 있어서 1(전혀 없다)부터 5(매우 자주 있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지현과 성지현(2006)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88이었고,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93이었다.

분석 절차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SPSS 25.0 및 PROCESS macro 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에 있어 기술통계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test로 조사하였다. 또한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더불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언어폭력에 자기비판/공격,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의 직렬다중매개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독립표본 t-test 결과

우선 기술통계와 함께 주요 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1 참조).

그 결과, 변인들 가운데 오직 일차적 분노 사고에서만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4$). 다시 말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일차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보였는데, 이는 분노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자신을 무시

표 1. 기술통계 및 독립표본 t-test 결과

변인	전체 M (SD)	남성 M (SD)	여성 M (SD)	t	d
자기비판/공격	2.78 (0.92)	2.84 (0.87)	2.72 (0.97)	-.98	-.14
일차적 분노 사고	3.46 (0.78)	3.30 (0.83)	3.62 (0.70)	2.95**	.42
부정 정서 반응성	3.02 (0.95)	3.04 (0.94)	3.00 (0.97)	-.31	-.04
언어폭력	2.45 (0.80)	2.56 (0.89)	2.34 (0.70)	-1.95	-.28

** $p < .01$

한다는 해석과 평가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다른 변인들의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관분석 결과

이번에는 자기비판/공격과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언어폭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모든 변인들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자기비판/공격 성향

이 높을수록 일차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하였고, 부정 정서 반응성이 더 강했으며, 언어폭력을 더 많이 저질렀다. 또한 일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할수록 부정 정서 반응성이 높았고,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였다. 더불어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할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3 참조). 1단계에서는 성별이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고 자기비판/공격과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언어폭력을 예측하는 모델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이었고($R^2 = .02$, $adjR^2 = .01$, $F = 3.80$, $p = .053$). 2단계에서는 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 = .29$, $adjR^2 = .27$,

표 2. 상관분석 결과

	1	2	3
1. 자기비판/공격	1		
2. 일차적 분노 사고	.47***	1	
3. 부정 정서 반응성	.76***	.56***	1
4. 언어폭력	.46***	.36***	.48***

*** $p < .001$

표 3.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독립변인	모형 1				모형 2			
		$B(SE)$	β	t	p	$B(SE)$	β	t	p
언어 폭력	(상수)	2.12(.18)		11.86***	< .001	.41(.29)		1.38	.170
	성별	.22(.11)	.14	1.95	.053	.25(.10)	.15	2.42*	.016
	자기비판/공격					.16(.08)	.19	2.00*	.047
	일차적 분노 사고					.17(.08)	.17	2.19*	.030
	부정 정서 반응성					.21(.08)	.24	2.45*	.015
F		3.80($p = .053$)				19.41($p < .001$)			
R^2		.02				.29			
$adjR^2$.01				.27			

* $p < .05$, *** $p < .001$

$F = 19.41, p < .001$).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9로 2에 매우 근접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4, p = .053$). 한편, 2단계에서는 자기비판/공격과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성별 등 모든 변인이 언어폭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기비판/공격 성향이 더 높을수록($\beta = .19, p = .047$), 일차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할수록($\beta = .17, p = .030$), 부정 정서 반응성이 더 강할수록($\beta = .24, p = .015$)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였고,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beta = .15, p = .016$)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였다.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

매개효과

이번에는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6을 통하여 분석하였다(Hayes, 2022).

그 결과(표 4, 그림 1 참조), 자기비판/공격 성향이 일차적 분노 사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 = .40, p < .001$)을 미쳤고, 일차적 분노 사고가 부정 정서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B = .32, p < .001$) 또한 유의하였으며, 부정 정서 반응성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B = .22, p = .011$) 역시 유의하였다. 더불어, 자기비판/공격 성향이 부정 정서 반응성에 유의한 영향($B = .66, p < .001$)을 미쳤으나, 일차적 분노 사고가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 = .12, p = .118$). 한편, 자기비판/공격 성향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19, p = .026$).

단순매개효과 분석 결과,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 일차적 분노 사고를 투입한

표 4.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

매개경로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자기비판/공격 → 언어폭력	.40	.06	.29	.51
직접효과				
자기비판/공격 → 언어폭력	.19	.08	.02	.35
총 간접효과	.22	.07	.08	.36
자기비판/공격 → 일차적 분노 사고 → 언어폭력(M1)	.05	.03	-.02	.11
자기비판/공격 → 부정 정서 반응성 → 언어폭력(M2)	.14	.06	.02	.27
자기비판/공격 → 일차적 분노 사고 → 부정 정서 반응성 → 언어폭력(M3)	.03	.02	.00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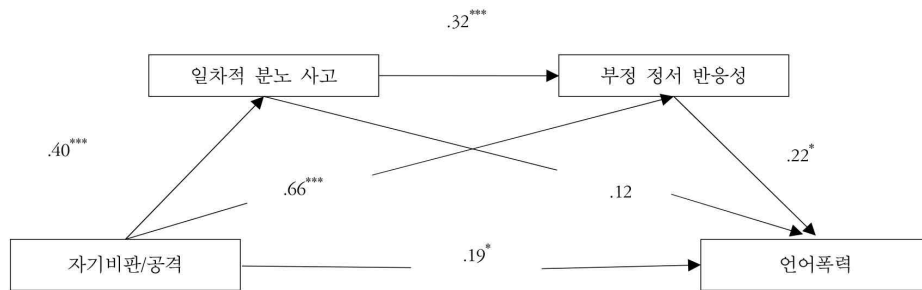


그림 1.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

단순매개효과(M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 부정 정서 반응성을 투입한 단순매개효과(M2)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부정 정서 반응성의 완전매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비판/공격을 많이 할수록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하고,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할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순차매개효과(M3)를 보였다. 즉, 자기비판/공격을 많이 할수록 일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하고, 일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할수록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하며,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할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최근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언어폭력에 대한 심리적 접

근으로,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인지적, 정서적 요인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폭력의 감소를 위한 효과적 개입 및 치료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비판/공격,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언어폭력에 있어 성차를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일차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보였다. 이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일차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보였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김미령, 2015), 일차적 분노 사고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과거 언어적 공격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으나(전지현, 성지현, 2006; Infante & Wigley, 1986), 이 연구에서 언어폭력의 경우 남성($M = 2.56$, $SD = .89$)이 여성($M = 2.34$, $SD = .70$)보다 평균은 높게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1.95$, $p = .053$).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변인들 가운데 일차적 분노 사고만 성차가 유의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는 부정 정서 반응성에 있어도 성차가 보고된 바 있다(Boyes et al., 2020; Syeda et al., 2023).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이 변인들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는지, 또한 만약 있다면 변인 간의

관계나 경로에 영향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비판/공격,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성별이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beta = .14, p = .053$), 2단계에서는 자기비판/공격,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성별 등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가장 먼저 자기비판/공격 특성은 그간 주로 자해 행동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김재희, 서경현, 2021), 타인을 향한 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연구 결과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자기비판/공격 특성이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에는 언어폭력 외에도 자기비판/공격 특성이 상대를 향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 등 다른 형태의 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차적 분노 사고는 분노 유발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로서 인지적 요소를 반영하는데,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실망과 무시를 경험하는 일차적 분노 사고가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존감을 위협하고 손상하는 상황 인지에 대한 평가가 언어폭력이라는 공격성의 표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과거 분노에 관한 연구들이 일차적 분노 사고보다는 이차적 분노 사고에 대해 집중되어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 것을 고려해 볼 때(김미령, 2015), 이 연구는 일차적 분노 사고와 폭력성 간의 관계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더불어, 정서 경험에 있어 분노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민감하고, 강하

게, 오래 반응하는 부정 정서 반응성이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서 반응성은 많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부적응 등과 관련하여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는데, 이 연구 결과는 언어폭력과의 관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별의 경우 앞선 t-test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언어폭력에 있어서의 차이나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도 성별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의 매개효과(M1)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매개모형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가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B = .12, p = .118$)와 관련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자존감에 위협이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를 반영하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높고 인지적 오류 및 왜곡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일차적 분노 사고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분노 유발 사건에 대한 대처 행동 및 대처 양상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이차적 분노 사고는 공격성을 촉발하는데 있어 일차적 분노 사고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서수균, 2009), 행동을 더 잘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이다(추미례, 김정희, 2008). 또한, 이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할수록 정당화와 반추 같은 파괴적 언어표현을 더 많이 나타낸 결과를 보였다(서수균, 권석만, 2005). 이를 고려했을 때, 향후에는 일차적 분노 사고 외에 이차적 분노 사고 또한 포함하

여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이르는 경로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네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부정 정서 반응성의 매개효과(M2)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자기비판/공격을 많이 할수록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하고,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할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였다. 정서 반응성은 낮은 자존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Syeda et al., 2023), 이 연구는 자기비판/공격 경향이 부정 정서 반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정 정서 반응성은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다른 변인에 비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자기비판/공격 성향: $\beta = .19$, 일차적 분노 사고: $\beta = .17$, 부정 정서 반응성: $\beta = .24$).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부정 정서 반응성이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긍정 정서 반응성이 정서적 병리에 대해 억제 혹은 완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결과를 바탕으로(허주연, 황성훈, 2023), 긍정 정서 반응성이 언어폭력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향후 연구해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M3)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자기비판/공격을 많이 할수록 일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하고, 일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할수록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하며,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할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순차매개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

는 언어폭력에 있어 성격적, 인지적, 정서적 요인이 다각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며, 언어폭력의 감소 및 치료를 위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결과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면밀히 유의해야 한다. 먼저 이 연구 결과는 20-30대의 연구 참여자를 바탕으로 얻은 결과이고 연구 참여자 수 또한 200명에 불과하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한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향후에는 보다 넓은 연령대의 연구 참여자를 포함하여, 자기비판/공격 특성이나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과 언어폭력의 양상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모형은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라는 경로로 설정되어, 변인 간 상관을 기반으로 하여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변인 간 선후관계의 경로 비교 등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자기비판/공격은 거부민감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재희, 서경현, 2021). 거부민감성 또한 부정 정서 및 공격성 등 부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이한울, 박지선, 2023; 최단비, 권호인, 2023), 향후에는 언어폭력에 미치는 자기비판/공격과 거부민감성의 영향 및 그 사이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 사이버 언어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

고 있다(이지연 등, 2023).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가 온라인 상에서의 언어폭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자기비판/공격이나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의 영향이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에서도 상대를 향한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향후 연구해볼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 결과는 언어폭력의 방지를 위한 치료와 개입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자기비판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치료 과정에서 치료자와의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Whelton, Paulson, & Marusiak, 2007). 이때 자비중심치료(Compassion-focused Therapy)가 자기비판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Vidal & Soldevilla, 2023), 이를 통해 자기경멸 및 수치심을 완화하고 자신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능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또한 마음챙김을 높이고 자기자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비명상 프로그램(Loving-Kindness & Compassion Mediation program)을 제공하여 자기비판/공격 성향을 줄여 궁극적으로 언어폭력을 감소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박희영, 윤석인, 2023). 특히 마음챙김 명상(Mindfulness Meditation)은 반사회성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윤석인, 박희영, 2023), 언어폭력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분노를 경험하는 상황 당시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있어 인지적 오류나 왜곡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일차적 분노 사고 과정과 관련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분노를 조절하고 공격성을 줄이며 언어폭력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5; 임지영, 2015; Szasz, Szentagotai, & Hofmann, 2011). 이와 더불어, 부정 정서 반응성을 완화하여 정서 조절을 개선한다면 언어폭력을 방지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Gross & Jazaieri, 2014).

참고문헌

- 강진설, 박지선 (2024).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언어폭력 간 관계에서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순차매개효과. *경찰학연구*, 24(4), 73-104.
- 권혜림 (2024). 청소년들의 사이버 언어폭력가·피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10(2), 1-14.
- 김경희, 이희경 (2024). 따뜻함과 안전 초기기억이 자기비판, 자기공격, 자기위안에 미치는 영향: 긍정성 강화와 긍정정서 비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2), 565-582.
- 김미령 (2015).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일차적 분노사고와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9), 327-353.
- 김수민, 이창배 (2021). 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경찰학회보*, 23(1), 195-226.
- 김유미, 송미경 (2017). 대학생의 자기비난과 우울: 내적 속박감과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4), 1055-1074.
- 김재희, 서경현 (2021). 자기비판, 거부민감성 및 자기공격과 비자살적 자해행동 간의 관계. *스트레스 연구*, 29(2), 122-129.
- 박은선, 박지선 (2024). 데이트 관계에서 내면

- 화된 수치심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0(1), 35-53.
- 박지선, 이한울 (2025). 악성댓글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11(1), 137-155.
- 박희영, 윤석인 (2023). 자비명상 프로그램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2(1), 1-32.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2024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서수균 (2007). 한국판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239-250.
- 서수균 (2009).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에서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695-708.
- 서수균, 권석만 (2005). 분노사고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87-206.
- 윤석인, 박희영 (2023). 마음챙김명상과 자비명상이 친사회성 및 반사회성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국내 연구의 체계적 리뷰 및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2(2), 141-177.
- 이석호 (2009). 정서반응성, 행동억제 및 활성화 체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자경 (2023). 학령전기 외현화 문제행동, 냉담-무정서 특성, 정서적 반응성의 잠재 프로파일 분석: 학령기 아동의品行문제 및 불안 간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김도예, 정유진, 이승연 (2023). 여자 청소년의 정서적 학대 피해와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의 관계: 내현적 자기에와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0(10), 287-307.
- 이한울, 박지선 (2023). 온라인 스토킹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3(1), 231-256.
- 임지영 (2015). 적대감 및 언어적 공격행동수준에 따른 네 집단 간의 비합리적 신념, 분노사고 및 삶의 만족도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2), 281-291.
- 전지현, 성지현 (2006). 조직구성원의 논쟁성, 논쟁 유연성, 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14(2), 257-282.
- 정여진 (2015).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주, 이승훈, 신철, 조용원 (2011). 한국판 자기비판/자기공격과 자기위안 형태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인지행동치료**, 11(2), 137-154.
- 최단비, 권호인 (2023). 성인남녀의 병리적 자기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4), 569-593.
- 추미례, 김정희 (2008). 대학생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특성분노, 분노사고 및 분노표현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023-1039.
- 한주리, 허경호 (2003). 부모-자녀 간 논쟁성향 및 언어적 공격성향의 관계. **한국소통학보**, 2, 41-71.
- 한현우, 최경숙, 남지애, 고부성, 김지민, 이창

- 화 (2025). 지역사회 청소년에서 언어 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64(2), 50-57.
- 허주연, 황성훈 (2023). 한국판 Perth 정서 반응성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9(3), 425-453.
- Becerra, R., & Campitelli, G. (2013). Emotional reactivity: Critical analysis and proposal of a new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6), 161-168.
- Becerra, R., Preece, D., Campitelli, G., & Scott-Pillow, G. (2019). The assessment of emotional reactivity across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rth Emotional Reactivity Scale (PERS). *Assessment*, 26(5), 867-879.
- Boyes, M. E., Carmody, T. M., Clarke, P. J., & Hasking, P. A. (2017). Emotional reactivity and perseveration: Independent dimensions of trait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psychological di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5, 70-77.
- Boyes, M. E., Clarke, P. J., & Hasking, P. A. (2020). Relationships between dispositional and experimentally elicited emotional reactivity, intensity, and persever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2, 109573.
- Bylsma, L. M., Morris, B. H., & Rottenberg, J. (2008). A meta-analysis of emotional reactivity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4), 676-691.
- Cox, B. J., Fleet, C., & Stein, M. B. (2004). Self-criticism and social phobia in the US national comorbidity surve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2(2), 227-234.
- Dunkley, D. M., Zuroff, D. C., & Blankstein, K. R. (2006). Specific perfectionism components versus self-criticism in predicting mal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4), 665-676.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Gilbert, P., Clarke, M., Hempel, S., Miles, J.N.V., & Irons, C. (2004). Criticizing and reassuring oneself: An exploration of forms, styles and reasons in female stude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3(1), 31-50.
- Gross, J. J., & Jazaieri, H. (2014). Emotion,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An affective science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2(4), 387-401.
- Hamilton, M. A. (2012). Verbal aggression: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antecedents and social consequence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31(1), 5-12.
- Hammett, J. F., Karney, B. R., & Bradbury, T. N. (2021). When does verbal aggression in relationships covary with physical violence?. *Psychology of Violence*, 11(1), 50-60.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The Guilford Press.
- Hazebroek, J. F., Howells, K., & Day, A. (2001). Cognitive appraisals associated with high trait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1), 1-12.

- 3Q(1), 31-45.
- Infante, D. A., & Wigley III, C. J. (1986). Verbal aggressiveness: An interpersonal model and measure. *Communications Monographs*, 53(1), 61-69.
- Martin, R., Watson, D., & Wan, C. K. (2000). A three factor model of trait anger: Dimensions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68(5), 869-897.
- Nagy, L. M., Polk, K. E., & Muckerheide, E. (2023). Self-criticism in anger, aggression, and violence. In C. R. Martin, V. R. Preedy, & V. B. Patel (Eds.), *Handbook of anger, aggression, and violence* (pp. 695-707). Springer Nature Switzerland AG.
- Nock, M. K., Wedig, M. M., Holmberg, E. B., & Hooley, J. M. (2008). The Emotion Reactivity Scale: Development, evaluation, and relation to self-injurious thoughts and behaviors. *Behavior Therapy*, 39(2), 107-116.
- O'Moore, M., & Kirkham, C. (2001). Self-esteem and its relationship to bully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27, 269-283.
- O'Neill, C., Pratt, D., Kilshaw, M., Ward, K., Kelly, J., & Haddock, G.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riticism and suicide probability.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8(6), 1445-1456.
- Patchin, J. W., & Hinduja, S. (2010). Cyberbullying and self esteem. *Journal of School Health*, 80(12), 614-621.
- Ripper, C. A., Boyes, M. E., Clarke, P. J., & Hasking, P. A. (2018). Emotional reactivity, intensity, and perseverance: Independent dimensions of trait affect and associations with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 93-99.
- Syeda, H., Shah, I., Jan, U., & Mumtaz, S. (2023). Exploring the impact of body shaming and emotional reactivity on the self-esteem of young adults. *CARC Research in Social Sciences*, 2(3), 60-67.
- Szasz, P. L., Szentagotai, A., & Hofmann, S. G. (2011). The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ang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9(2), 114-119.
- Vidal, J., & Soldevilla, J. M. (2023). Effect of compassion focused therapy on self criticism and self soothing: A meta analysi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1), 70-81.
- Werner, A. M., Tibubos, A. N., Rohrmann, S., & Reiss, N. (2019). The clinical trait self-criticism and its relation to psychopathology: A systematic review-Updat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46, 530-547.
- Whelton, W. J., & Greenberg, L. S. (2005). Emotion in self-cri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7), 1583-1595.
- Whelton, W. J., Paulson, B., & Marusiak, C. W. (2007). Self-criticism and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0(2), 135-148.
- 논문 투고일 : 2025. 08. 11
1 차 심사일 : 2025. 10. 17
게재 확정일 : 2025. 10. 28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Primary Anger Thought and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between Self-Criticism/attacking and Verbal Violence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100 males and 100 females in their 20-30s, the study explored examined the effect of self-criticism/attack on verbal violence, and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primary anger thought and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First of all, women displayed higher level of primary anger thought experienced in close relationships than men. There wa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found in other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effect of self-criticism/attack, primary anger thought, and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on verbal violence was all significant.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primary anger thought and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was significant between self-criticism/attacking and verbal violence.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self-criticism/attacking, the more likely to display primary anger thought experienced in close relationships, the stronger the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and the more likely to display verbal violence. In addition,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riticism/attacking and verbal violence.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self-criticism/attacking, the stronger the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and the more likely to display verbal violence. Finally, implications of the study on verbal violence and coping strateg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verbal violence, self-criticism, self-attacking, primary anger thought,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